

5·18유족들 “진실 증언 계엄군 용서하겠다”

“제보자 면책·포상 법적 보장” 정치권에 제안 눈길

5월단체 12일 법무부와 암매장지 발굴 조사 실무협의

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들이 광주민 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해 집단발포 명령 자·행방불명자 암매장지 관련 핵심 제보 자들에게 면책·포상을 법적으로 보장해줄 것을 정치권에 제안해 눈길을 모으고 있 다. 처벌 위주로 진상규명 분위기가 형성 되면 적극적인 제보나 양심 선언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5·18 유족,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양심선언을 한다면 기꺼이 용서할 수 있다 는 입장에 표명하고 있다.

9일 5·18기념재단, 광주 5월 3단체(유족 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8일 서울 국회를 방문해 우 원식·김동철·전정배 의원 등 여·야 원내 대표와 국회의원들을 만나 국회에 계류 중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5월 단체들은 국회의원들 에게 진실을 증언한 가해자에 대해 형사책

임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인센티브(포상 금·가산점 등)를 함께 부여하는 조항을 법 안에 명시해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최경환 의원(국민의당)과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그 범위가 구체적이 지 않아 제보나 증언을 받는 데 한계가 있 다는 판단 때문이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가해자들이 부담없이 양심선언에 나설 수 있도록 5월 단체가 먼저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여론도 작용했다. 과거 남 아프리카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극단적 인종차별정책)를 정리한 진실화해위원회 사례나 남미 군사정부시절 제보에 의해 암 매장지를 찾은 사실을 참조했다. 책임자 처벌이 아닌 진상규명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견서 작성을 도운 김정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 변호사 는 “제보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와 면책이 함께 제공돼 야 한다는 게 5·18재단과 5월 단체들의 의 견이었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은 어느 한쪽이 빠져있거나 확실하게 보장하는 게 아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 명했다.

5월 단체들은 37년 동안 은폐된 5월의 진실을 캐려면 제보가 있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한 5월단체 관계자는 “진상규명은 제보 가 핵심”이라며 “제보자가 광주시민들을 향해 발표한 당사자라도 핵심 증언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낸다면 용서해주고 면책과 함께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 했다.

5·18 유족, 단체들 간 가해자 용서의 범 위와 관련해 의견이 갈려 법안 제정 과정 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5·18 유족은 “행방불명자 유족들은 시 신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암매장에 가담한 계엄군이 적극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며 “행불자 유족 입장에서는 양심선언만 한 다면 용서를 넘어 오히려 고마운 마음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유족은 “1989년 국회청문회나 1995년 검찰수사 때 증언을 한 계엄군 지 휘관들은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과 함께 자위권 발동 등 본인을 합리화하고 정당성 을 주장했다”며 “제보를 하더라도 진정으 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일 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 집단 발포명령자는 꼭 밝히고 처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5월 단체 관계자들은 오는 12일 법무부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 자 암매장지 발굴조사를 위한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다.

올해 암매장지 발굴조사를 추진하는 5·18재단은 옛 광주교도소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무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지난 달 27일 허가를 보류한다는 회신을 받았 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5·18재단 관계 자와 면담 자리에서 협조 공문을 보강해 다시 보내달라고 주문했으며 실무회의에 서는 5·18재단의 발굴조사 준비 계획, 5월 단체와 유가족들의 참여 여부 등을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어금니 아빠’ 구속 살인 혐의 입증 주력 딸 시신 유기 가담 정황 확인

중학생 딸 친구 살해·시신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피의자 ‘어금니 아 빠’ 이모(35)씨를 대상으로 전날에 이어 범 행 동기와 방법 등을 집중 조사하는 등 살 인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이씨는 11 년전 희소병인 ‘거대 백악증’을 자신의 딸 과 함께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린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씨는 지난 5일 검거 당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질심사)을 받기 전 3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었다.

경찰은 피해자 부검 결과 곤에 의한 교 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구두 소견과 CCTV에 담긴 정황 등을 토 대로 이 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 력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30일 딸의 친구인 여중생 A(14)양을 살해하고 강원 영월의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씨 딸은 검거 직전 이씨와 함께 먹은 수면제 로 한때 의식을 잃었으나 깨어나 경찰 조 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씨의 시신 유기 과 정에 딸이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딸 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연합뉴스



긴 연휴 끝...자식 배웅하는 부모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광주 승정역 KTX(용산행)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상경하는 가족들을 배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 추석 연휴 기간 총 371만명이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모텔서 남친과 다투던 여성 머리 다쳐...하루 만에 숨져

30대 여성이 모텔에서 남자친구와 다투 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 지만 숨졌다.

9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A(여·30) 씨는 지난 6일 새벽 4시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한 모텔에서 ‘남자 친구 때문에 머

리를 다쳐 피를 흘리고 있다’며 경찰에 신 고했다. A씨의 신고 직후 남자친구도 역을 하다가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 찰은 119의 협조를 받아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결국 다음날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남자 친구와 다투는 과정

에서 옷걸이 등에 머리를 다친 것으로 보 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고현장에서 A 씨와 남자친구 모두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면서 “A씨가 숨진 만큼 부검을 통해 명확히 사망 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경찰 무성의에 추석 연휴 망친 시민들

여성 폭행 말린 귀성객에 “연휴 뒤 조서 작성하러 오라” 차량 훼손 신고하자 “연락 안돼 어쩔 수 없다”

광주·전남 경찰의 무성의하고 안일한 사건·사고처리 때문에 모처럼 맞은 긴 추석연휴를 망친 민원인의 하소연이 잇 따랐다.

9일 광주·전남지역 경찰 등에 따르면 추석연휴에 고향 목포를 찾은 김모(40) 씨는 지난 4일 새벽 0시50분께 목포시 상동의 길에서 한 남성에게 끌려다니며 폭행 당하는 여성을 도왔다가 최악의 추 석연휴를 보냈다.

가해남성에게 자신도 폭행을 당한 김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 부모와 잠시 얘기를 나눈 뒤 현 장에서 가해자를 귀가조치했다고 한다.

김씨는 “당시 경찰에게 폭행사건인데 현행범인 가해자를 조사도 없이 귀가시 킬 수가 있느냐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다음날 경찰서 방문 일정을 묻기 위해 전화를 했 다가 또 한번 황당한 소리를 들어야했다.

담당 경찰은 “연휴가 끝나는 10일 이 후에나 사건이 경찰서에 배당되니 그때 조서를 작성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김씨는 “외지에 사는 탓에 10일 이후 먼 휴가를 내고 목포를 방문해야 한다며 몇 번이나 빨리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지 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연휴 때 문에 사건조사가 뒤로 밀린다는 것이 말 이 되느냐. 앞으로 누가 폭행을 말리고

제보를 하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광주시 동구 학동에 사는 윤모(33)씨 도 추석 연휴기간 경찰의 무성의한 사건 처리로 낭패를 봤다.

윤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차량 앞범퍼부터 뒤범퍼까지 길게 난 흠 집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인근에서 가해 의심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차적조회 후 가해 운전 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안돼 어 쥘 수 없다”며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한 다.

결국, 명절을 맞아 가족 나들이를 계 획했던 윤씨는 차량 파손으로 계획을 취 소할 수밖에 없었고, 가해차량 운전자는 지난 7일에야 뒤늦게 연락이 닿아 ‘사고 후 조치’ 혐의로 벌금 25만원을 부과 받았다. 윤씨는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 는 것은 음주 운전 등 여러 정황을 의심 할 수 있는데도, 전화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는 수사방식이 이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광주시 남구 백운동에 거주하는 김모 (여·31)씨는 최근 아파트 입구를 무단으 로 가로막은 차량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김씨는 주차차량에 연락처가 없어 경 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차적 조 회 후 “전화를 받지 않는다. 억울하면 민 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말 만 남긴 뒤 별다른 조치없이 사라졌다.

김씨는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무 단주차 차량 때문에 일정을 망치고 말았 다”며 “시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선 경찰이 도움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낙시 중 바다에 빠진 막내 구하려다...진도서 父子 숨져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바다낙시를 하던 40대 가장이 초등학생 아들과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 시 13분께 진도군 지산면의 한 선착장에 서 A(43)씨와 큰 아들(11)이 바다에 빠 진 막내(7)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숨졌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꽃이 너무 예뻐서...커피숍 화단서 뽑아간 70대 뉘트는 후회

○... 커피숍 앞 화단 에 붉게 핀 꽃이 너무 예쁘다며 계모임 회원 들에게 자랑할 욕심으로 몰래 뽑아간 70 대 여성이 경찰서행.

○9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박모 (여·70)씨는 지난 8월 20일 새벽 4시께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김모(여·39)씨가 운영하는 커피숍 앞 화단에 심어져 있던 안시리유(15만원 상당) 1그루를 뽑아 자

신이 가지고 있던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갔다는 것.

○평소 새벽잠이 없어 비닐봉지를 들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도산동 일대를 돌면서 빈병 수거를 했다는 박씨는 경찰 에서 “활짝 핀 꽃이 너무 예뻐 다음날 집 에서 열리는 계모임 회원에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흠치게 됐다”며 선처를 호 소.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NPL과 특수물건만이 답이다.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최 선 규 H. 010-3605-5000